



익성학원은 산하 익산중 및 익산고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2월 9~14일, 2월 16~21일 1,2차로 나뉘 싱가포르에서 국외 연수를 진행했다

익성학원, 익산중·고 전체 교원 대상 국외연수

2월 9~14일, 2월 16~21일 1,2차로 나뉘 싱가포르 교육시스템 탐방
해외 선진 교육 탐방 통해 교원 능력 향상·미래 교육 변화 방향 모색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학교법인 익성학원(이사장 지승룡)은 산하 익산중 및 익산고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2월 9~14일, 2월 16~21일 1,2차로 나뉘 싱가포르에서 국외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교원 국외연수는 1995년 대만, 2010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의 주된 목적은 싱가포르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며,

학교 교육 혁신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익산 중·고의 교육 환경에 맞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연수 기간 동안 교원들은 싱가포르 오트람 중등학교(Outram Secondary School), 원월드 국제학교(One World International School), 싱가포르 난양 폴리테크닉(Nanyang Polytechnic),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등 다양한 교육 기관을 방문,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교수법을 직접 체험하고, 싱가포르의 교육 혁신을 현장에서 학습했다.

특히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 중심의 학습,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배양, IB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기술적 접근 방법 등을 중요시하고 있어 참가자들은 이를 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익성학원은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학교 환경에 맞춘 교육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들은 연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지승룡 익성학원 이사장은 “이번 해외 연수는 교원들이 선진 교육을 직접 보고 배우며, 미래 교육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이를 통해 익성학원의 교육 수준을 더욱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동기 기자

전북교육청, 대규모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출범시켜

총 15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지원단...2월 24일 발대식
진학상담부터 자료개발·대입전형 분석까지 체계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학생들의 대입과 진학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꾸렸다.

전북교육청은 2월 24일 분청 2층 강당에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단장 장진호 정

읍고 교사)은 진학 전문교사(128명)와 자문위원(3명), 권역별 진학부장(20명), 담당 공무원(4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다.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대입 진로 진학상담팀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 △수능전형 연구팀 △자료개발팀 △연수 및 현장지원팀 △대의협력팀 등 총 6개 팀으로 꾸려져 대입과 진학 지

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가운데 대입 진로진학상담팀은 전주센터를 포함해 도내 6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와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대면·화상 진학 상담, 고3 대상 수시·정시 집중 상담, 계열별·전형별 종합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학생부종합전형 연구팀과 수능전형 연구팀은 대입전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진학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한다.

자료개발팀은 대학 전형자료를 수집·분석해 대학 진학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사용 진학지도 설명서를 포함해 총 11종의 진학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이 외에도 '단위 학교 진학 전문가 양성'과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지원'을 목표로 대학 입시 결과와 모집 요강을 분석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모의평가 연수 등 분기별 심층 전문 연수를 진행해 대입·진학 정보 제공과 상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홍동기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익산예술의전당 MOU

교육활동보호 및 예술문화 활성화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은 2월 26일 익산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및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합창, 무용, 풍물 등 예술공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참여학교를 선정하고, 추진 일정과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예술 공연 및 행사 기획을 담당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과 예술공연을 활용한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협력하며, 지역 내 예술 및 교육 분야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지원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교육기관과 문화예술기관이 협력해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교육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공통체가 예술공연을 통해 활발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실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해정 기자

원광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올해부터 2026년 2월까지 국비 지원받아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6년 2월까지 국비 2억 원을 지원받는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은 미취업 졸업생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위촉된 채용연계 기업에 구직 청년을 취업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2년 이내 졸업생을 중심으로 체계적·맞춤형 자기 주도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일대일 집중 상담·임사서류 컨설팅·면접탈락 컨설팅·취업선배 멘토링 등 호응

이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졸업생 취업 관리체계 구축 방안 취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업과 미취업자 간 생방향 채용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졸업생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고용전산망 DB를 활용한 채용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인재개발처장 강지숙 교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청년, 그리고 고교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동기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전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이 주관한 2025년 신규 교사 직무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연수는 초등·초등특수, 중등 교수교과 및 비교수교과 신규 교사 636명을 대상으로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대면연수로 진행됐다.

연수는 신규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소명감을 확립하고,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교육철학 및 교육관 정립, 핵심역량 함양, 학교 현장 적응 지원을 중심으로 65시간(집합 35시간, 원격 3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강의와 실습이 병행됐다.

민완성 원장은 “실습 중심의 연수를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했다”며 “이번 연수가 신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동기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가운데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에 나섰다.

익산예술의전당에 따르면 3월부터 문화예술아카데미를 통해 6개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총 1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것.

성인 강좌는 5개교 △미술이론 △한국화 표현기법 △수채화 표현기법 △유화 표현기법 △판화 수업을 운영하며, 어린이 강좌는 미술로 표현하기를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2월 24일부터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강료는 5만 원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arts.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원 익산예술의전당 관장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홍동기 기자

익산교육청, 전면개편 지역화 교재 보급

‘우리는 익산에 살아요’...익산 초·중·고 교사 참여 개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 하기를 기대”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성환)은 초·중·고 3학년 사회과 지역화교재를 전면 개편한 ‘우리는 익산에 살아요’를 2월 24일부터 익산 관내 60개 초·중·고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익산의 현직 초·중·고 교사들이 개발에 참여한 이번 교재는 초·중·고 3학년 사회과 교재의 지역화가 필요한 단원을 보완하고, 익산 지역의 지리·역사·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교재의 단원은 △우리가 만드는 살기 좋은 익산 △익산의 변화와 달라진 생활 모습 △우리 고장 익산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또한 다채로운 사진과 삽화·시각 자료 및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는 활동

이 포함된다.

특히, 우리 고장 익산 단원을 부록으로 별도 편성해 익산의 상징·익산의 역사적 인물 및 주요 장소 소개, 15개 읍·면 지역 안내 등을 담았다.

한편, 익산 관내 초·중·고 교사가 직접 그린 ‘익산그림지도’를 교재와 함께 제공, 학생들이 지역의 정보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성환 교육장은 “‘우리는 익산에 살아’ 개발 보급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 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고장 익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익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기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5월 25일까지 연장

‘미륵사지 출토 치미·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윤립)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치미·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의 전시 기간을 연장해 5월 25일까지 무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최근 보존 처리를 마친 동원 승방지 출토 치미와 문헌 기록에 전하는 거작(巨跡, 새가 앉지 못하도록 치미의 날개 구멍에 쏘는 금속 막대)의 실제 사례를 최초로 선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을 비롯해 일반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지난 1월 10일에는 특별전 연계 학술대회 ‘익산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과 복원’을 개최해 ‘익산 미륵사지 치미에 대한 고찰’, ‘미륵사지 출토 치미 복원과 과제’ 등의 연구 성과를 대내외에 공유하기도 했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더 많은 관람객에게 전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주 연장 전시를 결정했다”며 “책에 최대 대를, 미륵사의 옛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해정 기자



익산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포스터.



원광디지털대가 2월 22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원광디지털대,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학사 1,361명, 석사 41명 등

원광디지털대(총장 김윤철)가 지난 22일 원광대학교 학생회관에서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월 24일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361명, 석사 41명 등 총 1402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김윤철 총장을 비롯해 정현을 익산시장, 원광학원 오도철 상임이사, 학과 교수진, 졸업생과 가족, 재학생 및 동문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위수여식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로도 진행해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졸업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설명기도(원불교학과 김은희 교수) △학사보고(강남훈 교무처장) △축사(김윤철 총장·정현을 익산시장) △치사(원광학원 오도철 상임이사) △송사(김민영 요가명상학과 학생회장) △답사(전통공연예술학과 이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정현을 시장은 “형설지공(螢雪之功)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졸업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영 학생회장은 “삶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배움이 되고, 새로운 기쁨이 되며,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졸업스토리 공모전 시상에서 최우수상은 전통공연예술학과 이호 학생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한방미용예술학과 경민규, 전통공연예술학과 김선희 학생이 수상했다.

김윤철 총장은 “졸업은 인생 2막, 3막을 여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심”이라며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해정 기자

에독자 여러분 구독료 청구지료가 우송되었습니다

남부해 주신 구독료는 좋은 신문을 만드는데 쓰여집니다

☎ 협 : 531016-51-114146 | 전북은행 : 603-23-0312395/603-13-0332189